

무료로 쇼핑몰 구축하세요

다른 업체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비추얼 쇼핑몰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선보였다.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 EC정보통신(대표 원영주)은 2월말 마이샵(www.myshop.com)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반 개인이나 적정한 수익모델이 없는 인터넷 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한다.

마이샵서비스는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마이샵은 쇼핑몰 솔루션, 판매할 상품, 결제 및 배송 시스템 등을 무료로 제공해 회원이 원하는 쇼핑몰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에 따라 2~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현재 준비된 상품은 가전,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아/아동용품, 스포츠용품의 5개 카테고리 7천여종으로 4월까지 15개 카테고리 2만여종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비추얼 쇼핑몰이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하여 특정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쇼핑몰을 말한다. 서비스 제공 업체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 양식과 상품 정보를 준비해 쇼핑몰을 구성해 두고, 필요한 경우 실시간으로 호출해서 이용한다. 따라서 별도의 전용선, 서버장비, 머천트 프

로그램, 상품정보, 결제와 배송 시스템이 필요 없이 하나의 독립적인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 운영,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다수의 회원과 콘텐츠를 보유해 활발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별한 수익구조가 없는 사이트들은 마이샵 서비스를 이용하면 독립적인 쇼핑몰을 구성해 회원만을 대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셀러리맨의 대표 커뮤니티 사이트 직장인(www.salaryman.co.kr)과 연예 정보 포털 사이트 (주)그루넷(www.groonet.com)이 마이샵을 이용해 쇼핑몰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회선공유 논란 일단락

올해 2월을 기준으로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가 45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용자가 가입한 회선에 약정수 이상의 단말기를 연결해 사용하는 이른바 IP공유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발표됐다.

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의견 검토한 결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IP 공유 금지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시장상황을 반영해 IP 공유문제는 업계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P공유란 공인 IP 하나를 수십에서 수백개의 가상 IP로 분할하여 다수의 컴퓨터로 인터넷을 동시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IP 공유기술은 현재의 IPv4 인터넷 주소체계에서 IP 주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가 보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용되지만, MS-Windows에도 포함될 정도로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의 일종이다.

현재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IP 공유가 적발될 경우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추가 사용한 컴퓨터에 대해 추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분석자료에서 IP 공유가 허용될 경우 전체 통신망의 트래픽이 적어도 10% 상승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반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과 기간망, 연동망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와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시장상황과 요금수준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프랑스 텔레콤은 500Kbps 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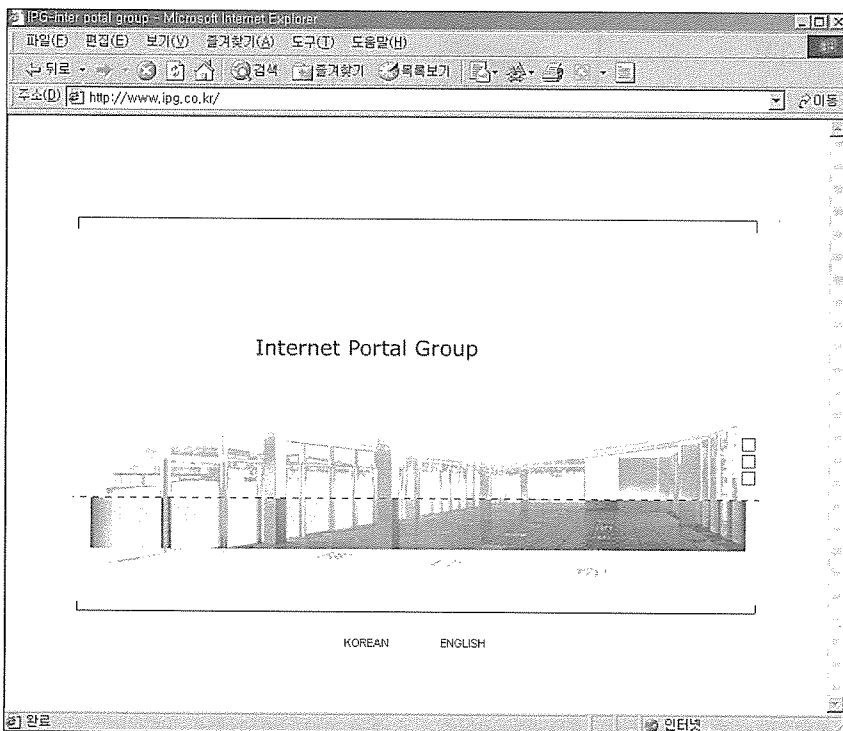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IP공유를 허용치 않고 1Mbps의 속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만 한정해 IP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무조건적인 IP 공유

허용은 관련 통신서비스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통신이용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관련산업, 기술발전 측면을 고려할 때 통신사업자들은 사

용단말수에 따른 적정한 요금체제 및 IP 공유시 보안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IP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국내 인터넷 산업, 아프리카까지 진출



종합 웨에이전시 IPG의 홈페이지

국내 인터넷 기업의 해외진출 영역이 아프리카까지 넓어졌다. 종합 웨에이전시 업체인 (주)IPG(대표 신성재)는 2월 나이지리아의 시너지(Cynergy)사와 포괄적 업무 제휴를 맺고 나이지리아의 인터넷기반 구축에 적극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IPG는 웹사이트 구축에서부터 인터넷 장비 수출, 인터넷 관련 솔루션 제공

등 나이지리아의 인터넷 사업 전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국내 게임산업의 대표격인 엔씨소프트가 온라인 게임 '리니지'로 미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호평을 받으며 해외로 진출한 것과는 달리, 인터넷 산업의 기반 구축 파트너로 국내 기업이 해외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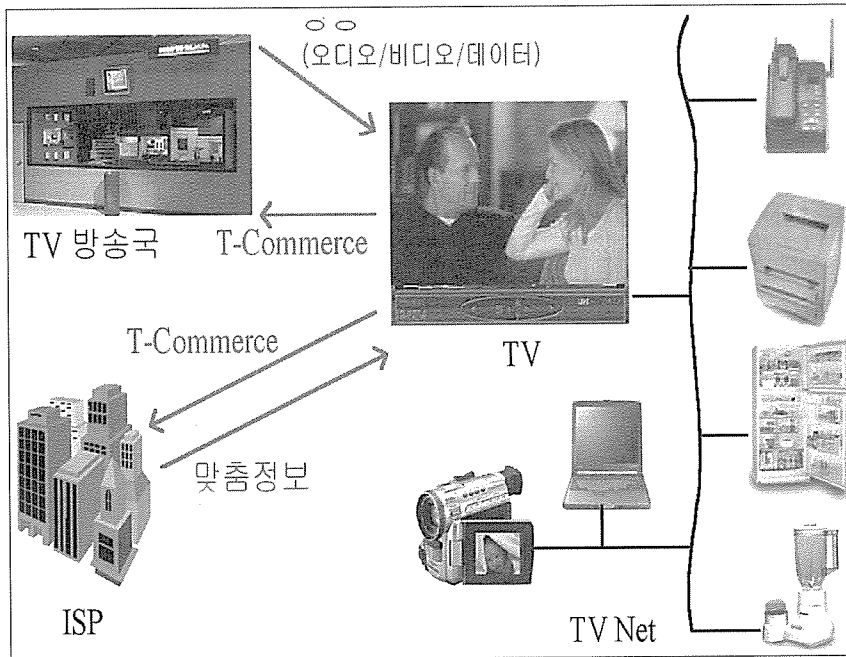
시너지는 나이지리아의 대표적인 기

업 엘레간자 인터스트리가 자국내 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 나이지리아는 인구 1억2천만명의 인적자원을 보유한 세계 7위의 원유생산국으로, 아프리카에서 문명 도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에게는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여겨지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아직 유선전화망도 완비되지 않아 위성망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인터넷 기반 구조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건설 중인 신도시에는 인터넷 인프라를 먼저 설치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IPG 신성재 사장은 “일부에서는 아프리카에 인터넷은 아직 시기상조라고도 하지만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듯이 먼저 가서 깃발을 꽂는 사람에게 그만큼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한 만큼 아프리카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실제 업체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컨설팅에 중점을 뒀다. 국내벤처기업과 아프리카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방향 디지털방송 기술 국내 개발



iMS의 개념도

디지털방송의 핵심 부가서비스인 양방향 데이터 방송기술이 국내에서 직접 개발된다. 산업자원부는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대화형 미디어 솔루션(iMS)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양방향 데이터 방송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직접 개발한다고 지난 2월 밝혔다.

2005년 9월까지 장기계획으로 시작된 iMS 기술개발 사업은 한국영상기

기연구조합 총괄로 방송사, 가전사 등 총 11개 기관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61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규모 기술 개발 사업이다. 2003년까지 완성될 1단계는 국내용 iMS 개발기간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맞춰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2단계는 2005년까지 해외 수출용으로 기술개발해 방송과 수신장치(TV)의 완벽한 정합

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MS 기술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개발이 진행된다. 첫째는 시청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반응이 가능한 대화형(interactive) 서비스로, 퀴즈나 인기투표 등의 홈엔터테인먼트에 적용될 수 있다.

둘째는 시청자가 원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맞춤형(personalized) 서비스로 다양한 채널 가운데 원하는 정보만 검색하고 저장, 재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TV를 중심으로 한 홈네트워크를 구현하는 TVnet 서비스는 컴퓨터, 조명장치, 기타 가정용 기기들과 TV를 연계하여 제어하는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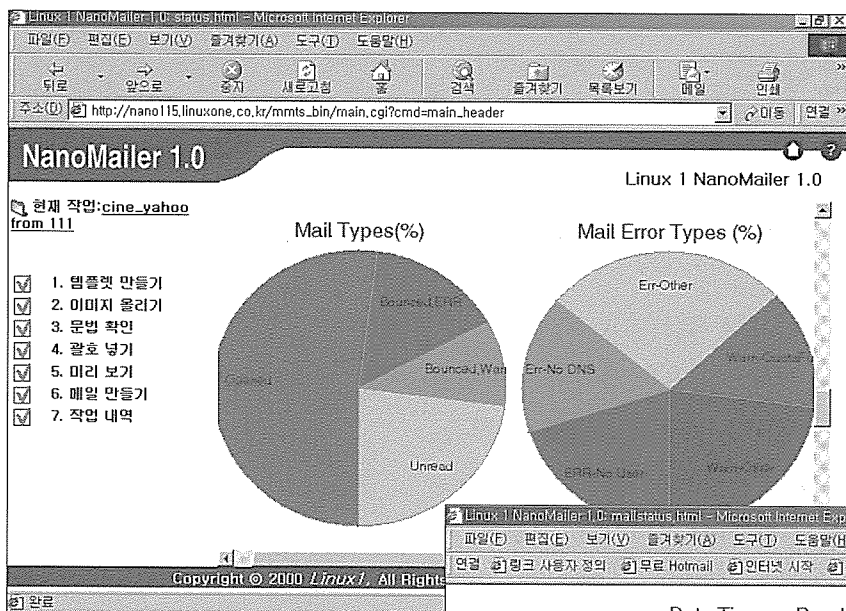
산업자원부는 iMS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방송의 디지털 방송 전환을 촉진하고, 유료정보와 수익성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통해 약 2조원으로 추정되는 디지털 전환비용을 회수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방송 관련 산업기술의 자립과 수출은 방송관련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서 50억달러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와 4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에 1천만명까지 발송하는 대용량 이메일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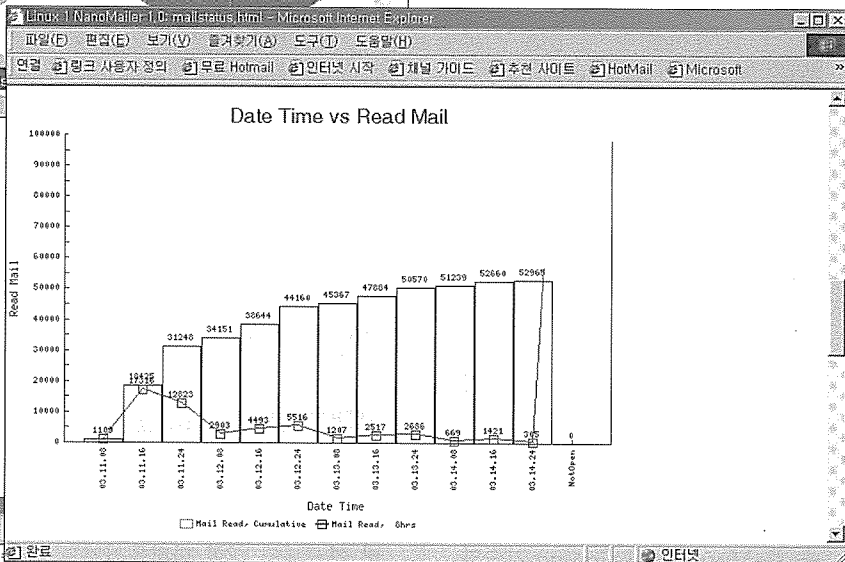
최근 한 대의 메일서버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제품이 리눅스원(대표 김

우진)에서 출시됐다. '나노메일러'라 불리는 이 제품은 리눅스원이 보유하고 있던 메일솔루션을

패키지화 한 제품으로 하루 10만명에서 최대 1천만명까지 동시에 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나노메일러는 리눅스 기반의 메일 발송 프로그램으로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또한 웹에서 운영되므로 사용이 쉽고, 예정된 시간에 발송할 수 있는 예약기능, 발송메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회원별 맞춤 메일 기능을 지원해 동시에



Linux 1 NanoMailer 1.0 preview.html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현재 작업: demo2

5. 미리 보기(Preview)

메일 발송 전 미리 보기입니다.

현재 레코드: [1] 데이터: mmts.mmts_test 전체: [6]

주소(To): neomailer@hanmail.net
제목(Subject): 노트북 신제품 소식품 소식

홍경동님께 보내는 신제품 소식입니다.

무선 인터넷 모뎀 장착 노트북 싱크패드 출시
LG IBM

LGIBM이 기존 240x 시리즈에 무선 인터넷 모뎀 '프리웨어'를 장착한 미니 노트북 '싱크패드'는 240x-4 시리즈<사진>를 4월부부터 판매한다.

이제 품은 전화선이나 휴대전화, 케이블을 휴대하거나 연결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Copyright © 2000 Linux1. All Rights Reserved. About License Term

여러회원들에게 각기 차별화된 메일을 보낼 수 있다. 특징적으로 반송메일을 분리 보관할 수 있어 메일 배달실패의 분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나노메일러는 10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매일 혹은 매주 주기적으로 메일을 보내야 하는 경우나, 사용자별 맞춤형 광고메일을 보내는 경우, 또는 e-CRM을 위한 차별화된 기업용 메일 발송을 요구하는 업체에 적합한 솔루션이다.

선이다. 리눅스원의 김우진 사장은 “많은 기업이 이메일 마케팅을 채택하고 있고 이것은 인터넷 환경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마케팅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이번에 출시한 나노메일러는 기업마케팅에 새로운 솔루션으로 보다 강력한 기업환경을 구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李 懸 (동아사이언스 기자)